

# 광주서 원룸 전세사기...청년·신혼 등 7가구 12억원대 피해

### 천정배 전 장관, 광산구 A원룸 다중 전세사기 사건 피해조사 우울증·공황 장애 등 정신 질환 시달려...“치료 지원 등 시급” 검찰, 주범 구속영장 청구...정부, 보완 입법 등 뒤늦게 마련

광주 지역에서 원룸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해 사회초년생들이 10억 원대 피해를 입고 우울증과 공황 장애, 수면 장애 등 심각한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100년살림민심센터(이사장 천정배 전 법무장관)는 지난 5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한 결과 광주시 광산구 A원룸 전세사기 사례를 접수하고 그동안 두 차례 피해자 간담회 등을 거쳐 피해 유형과 대책 등 조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A원룸 사례는 다가구주택 관련 법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

기범죄로 서민과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이 희생당하는 전형적인 ‘사회적 재난’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모두 7가구로, 피해 규모는 12억 원대에 달한다. 이 중 5가구가 혼자 사는 20~30대 사회 초년생들로 대부분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로 마련한 1억원 안팎의 전세 보증금과 어렵게 모은 돈을 매일 처지에 놓이게 됐다.

세입자 김모(34)씨는 다니던 대기업을 퇴사하고, 광주 첨단산단 내 향수회사에 재취업해 어릴적부터 꿈꿔왔던 조향사로의 새 인생을 시작하려는 찰나, 사기를 당했다.

김씨는 자신이 모은 300만원과 청년대출 1억2000만원으로 전세보증금을 마련했으나 한 푼도 되돌려 받지 못해 매월 원금 200만원과 60만원의 이자를 납부하는데 월급만으로는 감당이 안돼 주말까지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김씨는 “사기 피해를 당하면서 수면장애는 물론 우울증, 공황장애 증상까지 겪고 있다”며 “죽고 싶은 마음 뿐”이라며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여성 세입자 이모(26)씨는 “친구들은 돈을 모아 여행도 꿈꾸고 그러는데 난 계약 기

간 만료와 동시에 생기는 1억 원이라는 빚 앞에서 아무것도 꿈 꿀 수 없다”며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생각만 든다”고 하소연했다.

이씨는 월세 부담이 아까워 여수에 거주하는 부모님과 함께 모은 1000만원에 9000만원의 청년전세자금대출로 보증금을 마련해 지난해 6월 입주해 내년 6월 계약이 끝나는데 “시간이 갈수록 불안감과 무력감과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광산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광주지검은 주범 김모(여)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관련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A원룸과 같은 다가구주택은 건물주는 한 명이고 각 호실별로 세대주가 살고 있는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세대별 등기가 불가능하다.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차임과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를 알 수 없어 사기피해가 집중됐

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계한 다가구주택 반환 보증사고는 올해 1분기 동안만 전체 주택 유형의 49.3%를 차지했다.

이에 정부도 다가구주택 세입자들의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주택임대차법에 임대인의 정보제시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공인중개사도 임대차 중개시 임대인 동의 없이도 다가구주택 세입자의 보증금 현황 등을 열람해 설명하도록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했다.

천정배 이사장은 “이번 사건은 허점이 많은 법과 제도가 방치돼 피해가 집중 발생한 사회적 재난의 전형”이라며 “정부는 뒤늦게나마 이뤄진 보완입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면밀히 지켜보고 광주시는 청년층 피해자에 대한 심리 치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임형택기자



독감 무료 예방접종, 지난 20일부터 시작  
동절기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국가 무료 접종 사업이 시작된 20일 서울 강서구 부민병원에 독감 예방 접종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 1년넘게 독감 유행...“항체형성 감안하면 가을접종 권장”

### 독감백신 접종자 80% 예방효과 가져

1년 내내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주의보가 이어지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독감 유행 주의보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은 2000년 이후 처음이다. 독감 예방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려면 2주 정도 소요돼 겨울철 본격적인 유행에 앞서 백신접종이 권장된다. 20일 고려대 안암병원에 따르면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질환이다. 일반적인 감기와 달리 증세가 훨씬 심하고 고열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독감이 유행하지 않아 자연

면역이 감소한 상태에서 지역사회 독감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독감은 초기 발열, 두통, 근육통과 같은 전신 증상이 나타난다. 이후 콧물, 기침,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다. 기침을 할 때마다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을 느끼거나 안구통이 심해 눈물이 흐르는 경우도 있다.

독감을 진단 받으면 약물치료와 증상에 따른 치료를 해야 한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없애는 데 효과적인 약이 아직 없기 때문에 해열제 등을 통해 증상을 완화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치료의 원칙이다. 그러나 숨이

चा고 가슴의 통증이나 3~4일 이상 고열이 지속될 경우 폐렴, 심근경색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진찰을 받아야 한다.

독감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백신을 접종하는 것이다. 독감백신의 항체가 형성되기까지는 약 2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독감 시즌이 오기 전인 가을에 접종하는 것이 가장 좋다.

특히, 신체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는 65세 이상 고령층, 생후 6개월~59개월 소아, 임신부, 만성폐질환자, 만성심장질환자, 당뇨환자 등은 독감에 걸리면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기저질환자로 인플루엔자 유행 전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오유나기자

## ‘그만두겠다’ 직원과 다투다 흥기 든 미용실 대표 입건

### 흥기로 위협적 언행 한 혐의로 조사중

나주경찰서는 고용 계약 해지 문제로 다투던 직원을 흥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를 받은 미용실 업주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20분께 나주시 한 미용실에서 직원 B씨와 B씨의 남자친구에게 흥기로 위협적 언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

다. 조사 결과 A씨는 미용실에서 일해온 B씨의 고용 계약 청산을 놓고 말다툼 하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의 집 정리를 돕고자 동행한 남자친구와도 격한 언쟁을 주고받은 직후, 미용실 한 칸 주방에 있던 흥기를 꺼내든 것으로 조사

됐다. 경찰은 목격자 증언과 당시 정황이 담긴 영상 등을 토대로 A씨를 추궁, 범행 시인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A씨가 B씨 남자친구를 업무방해 혐의로 신고한 데 대해서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나주=송준표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